





2006년 1월 1일 (나해)

강론 …

마리아와 평화



리수현 신부 (창인동 성당 주임)

하느님께서 뽑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간이며, 그 것도 가냘픈 처녀인 마리아,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 는 은총을 받은 여인, 그래 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는 찬양받아 마땅합

니다. 그분께 오직 거룩하시다라는 말로 우리는 찬양드 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 뿐 아니라 인간들끼리의 화해를 위하여 가장 완전한 중개자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 다른 차원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야 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에페 2,14)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인이시며 일치와 평화의 원리"(교회헌장 9)이심을 제2차바티칸 공의회로 하여금 천명토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겨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더 나아가 인류의 어머니까지 되신 성모 마리아는 인간들이 화

합하고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협조자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평화의 모 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교황 바오로 6세는 "평화는 질서의 정연함"(신국론 XIX, 7)이라고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의 없는 곳에 참된 질서 없고, 정의 없이 평화 없다(1978년 평화의 날 메시지 참조)고 가르쳤습니다. 불의의 세상에는 기쁨도 사랑도 없고, 증오와 다툼과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싸움(전쟁)은 무력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차원의 갈등과 대결과 충돌을 말합니다. 냉전이끝난 현시대에 지구상 몇군데 외에는 무력 충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와 세계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격렬한 경쟁속에 지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전쟁인 '세계화 강요'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워서 어떤 차원의 전쟁도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각 개인은 예수님과 성모님 처럼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방 향으로 회개하면서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입당송

하례하나이다. 거룩하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민수 6.22-27

화답송 시편 67(66), 2-3,5,6과 8(◎ 2기)

●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제2독서 갈라 4,4-7

복음 환호송 히브 1,1-27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 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

복음 루카 2,16-21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로 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 으로 세운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은 예언자들뿐 아니라 나 의 모든 종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열왕하 9.6)

이 깨닫기는 어렵다. 라 말할 수 없다. 때

시니 선택받은 이는 칼날을 밟는 것만 같다. 거룩함에로의 부르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심판의 칼이 주어지는 경우 도 있다 부르심은 영예이지만 극복해야 할 장애도 따르고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부르시니 소명 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다.

아합 왕 시절부터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예후가 기름부음 들 요람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는 예언 자 수련생이 찾아와 기름을 붓고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 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 엘 왕으로 세운다" 밑도 끝도 없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다행히 동료 지휘관들이

하느님의 선택은 심 다그치는 바람에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지만 그것이 일이 진 오한 계획이라 사람 행되는 순서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예후의 말을 들은 동료 지휘관들이 나팔을 불며 "예후가 깊은 뜻은 물론이고 왕이 되셨다!" 하고 선포하였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 결과를 놓고도 무어 다. 반란이다. 하느님의 선택에 반란이란 있을 수 없지만 지 금은 엄연한 현실이다. 예후는 기호지세가 되어 일을 즉각 로 모순과 억지도 구 시행에 옮긴다. 당신 종들의 원수를 갚으시리라던 하느님의 애됨이 없이 감행하 말씀대로 예후는 이즈르엘에서 왕을 죽였다. 그리고 성 안 에서 이세벸의 최후를 확인하였다. 예후는 하느님의 말씀이 누앞에서 실현됨을 바라보며 아합 가문의 남은 자들을 모두 학살하였다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 세상은 피로 물들고 옥좌는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그러하였음을 어찌하라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이었 을 받았다. 아합을 따르며 보필했던 그가 이제는 아합의 아 전 것이다. 예후가 뽑힌 것은 그 안에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충절이 컸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누구나 부르실 수 있다. 그 러나 아무나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위해 마음의 열정을 가진 자를 부르 시는 것이다

밀알

나의 하느님 THOU WEIGHT 온전히 당신만을 향하게 하소서 (당신을 찾나이다 p-성 니콜라)

흙에서 나온 사람의 평화



은 비고 도시가 더욱 팽창하고 있다는 뜻인 셈이다.

언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을 향해 올라가다가 묘한 생각과 느낌에 혼자 놀란 일이 있다. 땅으로부터 은 욕망이 아니기를 빌어보는 것이다. 벗어나서 내가 지금 하늘로 오르고 있으니 참으로 홀가 아파트 꼭대기층인 18층에 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아보리라. 흙에서 나온 사람의 참 평화를. 도 연이어 하고 드디어 30층, 40층도 좋겠구나 싶어졌

었다

사람이 땅을 버리고 살 수가 있는가? 흙에서 나오는 소출을 안 먹고 배길 수 있는가? 제가 오염시킨 하늘로 오른들 어디까지 오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사람이 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바벨탑을 짓는구나 싶었던 것 이다

지난해도 역시 우리나라나 세계가 다함께 폭력, 전쟁, 불의 가난 질병, 굶주림에 시달렸다. 희망이 절망 뒤에 온다지만 참 어두운 세상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지나간 한 해는 다 잊고 싶은 날들이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시간도 역사 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니 이왕 만들 것이면 우리 지방에도 고층아파트가 갈수록 늘고 있다. 농촌 앞으로는 제대로 된 지혜로 이뤄나가게 됐으면 좋겠다 는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묵시록 21.1)을 갈망하되 어리석

올해는 위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애를 써보고. 땅 분하구나 하는 안심 같은 것이었는데. 15층보다는 우리 을 흙을 밟으려고 힘써보리라. 거기서 사람의 평화를 찾

글: 정인섭(안드레아) · 그림: 황의성(세례자 요한)





이병호 주교 집전 성탄미사 이모저모

중앙, 덕진 성당 -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지난 12월 24일(토) 오후 10시에 이병호 주교 주례로 주교좌 성당인 중앙 성당에서 성탄점야미사를 봉헌했다.

이병호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탄이 일년 중에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의의미는 앞으로 해가 점점 길어지는 과정, 즉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더욱 드러낼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길 기원"하였다

25일(주일) 성탄 대축일에는 덕진 성당(주임=양경배 신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성탄대축일 낮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중 우리에게 오신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경배하며 바오로성서대학 졸업식(=96명) 및 수료(91명), 입학식(105명)을 실시했다. 바오로성서대학은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3월 개강하여 화요반 오후 7시 30분, 목요반 오후 2시에 전신자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월 14일부터 2006년도 일정을 시작한다.

● 팔복동 성당 성탄예술제 및 영세식



팔복동 성당(주임=최종수 신부)은 지난 12월 23일(금) 24명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세식을 거행했다. 지난 12월 24일(토)에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성탄예술제를 열었다. 노인들과 맞벌이신자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들이 참가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다.

(KIA) 기이저동차

·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 승용, 1톤, RV등 전치종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차량상담: 011-793-8686 ■야 간:亩(063)254-7226 담당:차장 김영기(스테파노), 징영주(요셉피나)

계 축 원 경복궁음악학원

독일국립음대졸업 / 음대출강

원장: 김미정(크리스티나) 문의: 225-6066

평화동 경복궁 아파트 상가 2층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약학박사: 김용기(베드로)

T(063)275-5700 FAX. (063)275-5760

예정시간을 훨씬 넘기는 열띤 경쟁 속에서 반원들의 일 치된 모습을 볼수 있는 1구역 2반(반장=한영숙)이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금암동 성당 성탄예술제

금암동 성당(주임=김요안 신부)은 지난 24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레지오 쁘레시디움, 구역, 초중고등부 등이 출연해 합창,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무대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아낌없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모처럼 금암가족 모두가 하나됨과 함께 성탄축제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 한편 성탄절을 맞이하여 본당 및 제단체에서는 관내 소외된 이웃과 중증장애인시설인 무지개

원 아 모 집 군산 사회복지 당동댕 어린이 집

자연진화적 교육환경 / 활동중심통합교육 및 생태과학교육 대상: 2세~7세 취학전 어린이 (법정,저소득,두자녀,농어민 혜택) 원장: 원대유어교육 대학원석사 김정희(소피아) ☎ 452~0162, 011-671-0162

인간이 느낄수 있는 가장 자연스런 소리를 추구합니다. 독일보청기

김제점: 구 간이배차장앞(546-3652) 부안점: 부안단위농협앞(581-3537) 이길재(베드로) 김해숙(실비아)

100번 수산

삼천동 농협 공판장내 홍어, 조기, 갈치 외 고급생선 도·소매 227-7877 / 010-7153-8045 이 미숙(리디아)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야외주차장 앞



가족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기수도 기자|

● 용진 성당 성탄예술제



용진 성당(주임=서철승 신부)은 성탄을 맞아 유아, 유치, 초등부 주관으로 성탄예술제를 열었다. 최근 2년이 넘게 진행된 석산반대 농성과 최근에 주임 신부를 비롯한 몇몇 신자들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긴장된 상황에서 펼쳐진 예술제는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었다.

● 오룡동 성당 성탄 마구간제 및 세례식



오룡동 성당(주임=이성우 신부)은 지난 24일(토) 예수 성 탄 대축일을 기념하여 초·중·고 학생과 각 구역별 장

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장 문 외 과

치질 · 변비 · 유방크리닉 전문의 최 성 양루가)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종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성이시돌 제주피정

(미사,말씀,자연피정,총고해성사) 장소: 평화의 섬(성이시돌목장내)

일시: 1월18일~21일, 2월 20일~22일, 25일~27일

신청: 02-773-1455 성이사돌피정센터 *본당단체(30명 이상)원하시는 날짜에 행사해드립니다.

젬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엠마오하우스 펜션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도 관광오시는 신자여러분의 여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차량 및 호텔, 펜션, 민박) 문의 : 010-4733-5005.

064-752-6159 대표 : 좌순옥 (가밀라) 기자랑 그리고 12명이 세례를 받고 1명이 첫영성체를 가 졌다

초등부는 율동과 합창 그리고 수화 등을 발표했고 중·고등부는 댄스스포츠와 합창으로 멋진 공연을 연출했다. 구역별 장기자랑은 성극, 율동, 합창 등으로 발표하는 신자나 구경하는 신자들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즐거운시간을 보냈다. 영예의 1위 구역은 삼성구역(구역장=유영애)이 차지했다.

● 삼천동 성당 성탄예술제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은 지난 24일 성탄 성야미사와 성탄예술제를 열고 25일에는 주임신부 영명축일 축하와 점심 나눔 잔치를 펼쳐 특별한 성탄맞이를 하였다. 김병환 주임 신부는 대림 1주일부터 본당 신자들에게 성탄맞이 마르코복음 문제풀이를 풀게 하고 구역별 성서이어쓰기를 진행, 새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하도록 격려하였다. 성야미사전에는 구역별 성가경연대회와 초중고 성탄예술제를 통해 본당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아기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성야미사 중에는 신앙체험수기 공모와 대림 기간 동안 실시해왔던 성서이어쓰기와 성서문답풀이, 그리고 구역별 성가경연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우와 구역들을 시상하였다. [서송원기자]

● 쌍교동 성당 성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나눔 실천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 신부) 사회복지분과(분과장=이중회)에서는 본당 신자들의 성미모금과 익명의 후원으로 성탄을 맞아 지난 24일(토) 어려운 이웃 36세대에 쌀 10Kg과 내의 한 벌씩을 전달하며 훈훈한 주님의 사랑 나눔을실천하였다. 쌍교동 성당은 매년 성탄 때면 이웃사랑 나눔을실천하는 성미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인보호스피스 재가봉사단(센터장=정진숙 수녀)은 매주 토요일 거동 불능환자 15명에게 목욕, 가사도우미와 말벗 봉사 등 사랑과나눔의 몸소 실천으로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강인식 기자|

남문문구도매센타

(교우분들 특별할인)

문구·사무용품·대형마트식 매장 주차장 완비, 배달 가능

대표 원수관(야고보) · 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옆 ☎(063)283-3352/ H·P 011-652-7721

성소모임

착한목자 수녀회 착한목자 관상 수녀회

일시: 2006년 1월 8일 오후 2시~5시 장소: 착토자(사회성) 정의집 연락처: 011-9653-8805

비고: 착한목자관상 성소모임도 함께합니다.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성소자 피정

주제 : 너 어디에 가던지… 임시 : 2006년 1월 6일~8일

일시: 2006년 1월 6일~8일(2박 3일) 장소: 강원도 원주시 수녀원(본원) 문의: 033-743-9781, H.P 017-372-9781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도구, 세면

(피정비 1만원)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일시: 1월 8일(주일) 오후 2시

장소:서울돈암동수1원

문의: 011-9319-1690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교구장 일정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례미사 1월 2일(월)
- 신년하례식 1월 3일(화) 오짐 10시 30분
- 참사회 1월 3일(화) 오후 3시
- 사제 · 부제서품자 피정 1월 4일(수)~11일(수)

미사 · 행사 · 모임

- 포콜라레 모임 1월 1일(주일) 오후 2시 복자성당 교육관
- 교구성직자 위령 월례미사 1월 2일(월) 오전 11시
- 교구 사회복지후워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례미사(신년하례식) 1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재경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1월 2일(월) 오후 2시
- 교구 신년하례식 1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중앙
- 참사회 1월 3일(화) 오후 3시 교구청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1월 5일(목) 오전 10시 덕진
- M.E 107차 주말 1월 6일(금)~8일(주일) 천호
- 평협 정기총회 1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센터
- 고등부 천동연 겨울한마당 1월 7일(토)~8일(주일) 해월리
- 성모기사회 모임 1월 7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 서전주 하나회 미사 1월 8일(주일) 오후 2시 삼천동
- 예비신학생 월모임
- 1월 8일(주일) 오후 1시 30분 윤호관 • 선택 주말

1월 13일(금)~15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대상: 20세이상 미혼 남녀 참가비: 75.000원

신청: 011-1778-6618 청소년교육국

교육 · 피정 · 연수

 초등부 복사단 연수(1.2차) 1월 2일(월)~4일(수) 해월리

- 사제 · 부제 서품자 피정 1월 4일(수)~11일(수)
- 사회교정사목 상담 봉사자 교육 1월 4일(수) 오후 1시
- 교구 전례위원회 연수 1월 9일(월) 오전 10시 수류
- 1월의 영화(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제목: 씨비스킷

내용: 좌절과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해준 작은 경주마의 전설적인 실화를 영화 화한 최고의 영화

일시: 1월 4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문의: 홍보국 285-0041 / 상영시간 161분

1월 14일(토) 오후 2시~) 문의: 행정실 255-2678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 전주가톨릭신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학과 및 인원: 성서교육과 교리교

육과, 신앙연수과(각 50명), 성서연수과

(전주 200명, 익산 70명, 군산 120명, 남원 70명)

모집기간: 12월 1일~2006년 1월 13일

(1월 16일(월) 오전 10시~, 신앙연수과

면접안내: 성서교육과, 교리교육과

배달, 차량봉사 **활동시간**: 월~금 주1~2회(회당 2시간) **문의**: 정관일 232-0334, 286-0334

활동분야: 가사도우미 밑반찬 및 도시락

알림

• 전주교구 빈첸시오회

전주교구 빈첸시오회는 팔복본당 양쌍수 (요한) 형제를 제5대 회장으로 선출, 3년간의 교구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새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내역(12/19~25)

익명의 수도자 50,000 (여수) 김길자 엘리사벳 100.000 국민은행 중앙(지) 300,000 김영진 마지아 500,000

기타

• 서일 성당 주소 변경 (560-822)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22-4 FAX: 251-6979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교구청 관리국 286-0091

수도회 성소모임 안내

수도회명	모임일시	모임장소	문 의
사랑의 씨튼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3-281-0441
성바오로딸수도회	첫째 (월) 오후 7시	전주 바오로딸 서원	063-252-3398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3-244-0094
꼰벤뚜알 프란치스꼬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마리아의 딸 수도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복흥공소	063-653-8004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창인동 성당	063-858-4724
경로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3-243-1440
예수수도회(전주 · 익산)	넷째 주일 오후 2시	평화동/익산 성모병원	011-420-0268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군산 나운2동 성당 수녀원	063-467-9200
작은 예수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동산동 전주장애인공동체	063-212-1589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셋째 (토) 오후 6시	가정방문실	016-634-5637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화산동 성당 수녀원	063-225-3675
전교 가르멜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3-274-9262
노틀담 교육 수도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동신A.1동 1303호	063-246-8376
예수 성심 시녀회 성소	셋재주일 오후 2시	이중성당수녀원	063-244-6762
미리내 천주성삼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1-674-1251
인보성체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3-284-3231
선한목자 예수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서울 길음동 본원	02-919-2754
까리따스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덕진 수녀원	063-272-5304
서울성가 소비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효자동 수녀원	063-223-3822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3층 성소국	011-9852-9817
관상 · 착한목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가정의 집	011-9653-8805

폭설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농촌사목과 정의구현사제단은 1월 15일 까지 가톨릭센터 1층 '온가'의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가게'에서 생활필수품을 받습니다. 함 께 하실 분들은 282-4204, 285-004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J

- ⊙ 새해에도 주님 축복으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성가정을 이루세요!
- 1. 성탄행사에 특별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①구유1셋트(70만원)-익명

- ②제대꽃값-엄창숙.이면재.김흥겸,최옥순,유순상,정병식,이재만,소재희, 박남순, 박남수, 황금의궁전, 김분예, 이순애, 이창근, 이연숙, 배희옥, 유석
- 2. 감사헌금: 익명(10만원), 이정임(1만원)*감사합니다
- 3. 금주 모임: 일-회장단회, 공소모임, 화-애령봉사자회

수-대건회. 금-돈보스코회

■ 지난주 봉헌금 : 3,657,310원

4. 금주 성당청소 : 비봉공소

■ 교무금: 2.055.000원

 \neg

-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금암가족 모두의 건강과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1. 교구 신년하례식: 3일(화) 10시30분 중앙성당 ※ 본당 10시미사는 새벽 6시미사로 변경 2. 2005년 교무금을 완납하시고 2006년 교무금을 신립바랍니다. 3. 예비신자 모집: 교리시작: 수요반 2월1일(수) 전 10시 목요반 2월2일(목) 주 7시30분, 일요반 2월5일(주일) 전 8시 ※ 항세대 항보씨 이도하시다.
- ** 한세대 한분씩 인도합시다. 4.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1일(주일) 공식미사 후 ② 천상의 모후 Cu : 3일(화) 후 7시30분
- ③ 구역반장 회의 : 6일(금) 전 10시 ④ 성마리아 Cu : 7일(토) 후 2시 5. 감사헌금 : 익명 1백만, 유제록 2십만, 강옥순 5만 지난주 봉헌금 : 3,512,790원

- ◉ 2006년 새해에도 교우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빌며. 복 많이 받으세요. =본당 사목회 =
- 금주모임: ①제대회 4일(수)미사후 ②사목회 6일(금)후8:00.
- 2. 차주모임: ①꾸리아, 구역장모임 공식미사후.

②요한회 - 11일(수)후8:00.

- 3. 금주전례 : 해설 곽성곤 독서 및 복사 - 김승회, 문혜정, 제물봉헌 – 박윤규(안토니오)부부.
- 4. 차주전례: 해설 신미숙 독서 및 복사 - 장현철, 이용숙, 제물봉헌 - 권종근(요셉)부부.
- 5. 미사안내: 금주 사랑하올 어머니pr. 차주 바다의 별pr.
- 6. 감사헌금 : 익명 10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702,400원
- 교무금: 2.665.000원

양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에도 주남의 은총이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1. 금주 모임: 꾸리아―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요셉,안나,바오로,모니카,밀알,아카페회―공식미사 후
 3. 교구 신년 하례미사: 3일(화) 전10:30, 중앙성당
 4. 감사한금: 강영훈베드로(3만원), 이임복리노(30만원), 홍의환베드로(10만원) *감사합니다.
 5. 차주전례: 해설─ 강혜경, 독서─김정탁, 박덕님
 기도─임선주 복사─김수현, 유완봉
 예물봉헌─백진우(요한), 김경숙(루시아) 부부
 차량운행─ 허윤수(베드로)남
 6. 성당 청소: 신원구역
 지난주 봉헌금: 955,000원
 교무금: 970,000원

0}

주암신부 : 244-2268 사무실 : 244-6768 주암신부 : 전 중복 FAX: 244-6767 수 녀원 : 244-6762 서목회장 : 홍성준 홈페이지 http://www.ajung1004.net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6년 새해에도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김 루시에 수녀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금주 모임① 평화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의 오늘(1일) 전 9시
 ② 사목회 오늘(1일) 교중 미사 후 ③ 안나회 6일(금) 미사 후

 2. 제4대 사목회 임원 임명
 사목회장 홍성촌 부회장 이수구 권춘지, 충무 길성수 재정 임영환교육 이미장 후성은 부회장 이수구 권춘지, 충무 길성수 재정 임영환교육 이덕일 전례 총명미, 홍보 설재두, 청소년 이수행 지역 박오군, 자무위원 오토관, 조양교 ※ 수고하시겠습니다.

 3. 가톨릭 센터 건립 기금 : 신입 8세대, 신입액 380원 신입 총 세대는 161세대, 신입 총 액 77,520원 4, 예수 성탄 대 축일 제대 꽃 봉헌 : 오명숙 김동향 5. 감사헌금 : 임지연 이희숙 이기원 각 일십만, 이덕인 이만, 감사합니다. 6. 금주 청소 : 5구역 4,5반
 지난주 봉현금 : 5,324,050원
 교무금 : 15,187,000원

짓

- 12월 22일(목)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총 27명(본당신자는 13명)이 선고받았습니다.
 1.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 봉서사 성담스님, 서철승(가톨로)신부
 2. 벌금 500만원: 박종배(안드레아), 김춘식
 3. 벌금 300만원 : 박종배(안드레아), 김춘식
 4.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우기호(안당) 박종진
 5. 벌금 70만원 선고유예(5명): 김이순(리브가), 김종선(루시아), 박석종, 김영숙, 최형철
 6. 벌금 50만원 선고유예(14명): 강병렬(요한), 정진수(율리아노), 이옥순(따리아), 이용원(가브리엘), 입대봉(프랑지스피), 유덕례(요안나), 이금순, 이종운, 이 이용원(가브리엘), 입대봉(프랑지스피), 유덕례(요안나), 이금순, 이종운, 이 이용원(가브리엘), 입대봉(프랑지스피), 유덕례(요안나), 이금순, 이종운, 이 기회용, 정도소, 이숙임, 장수갑, 김홍식 *두억, 신촌구역 신자들과 주민들은 항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주성당청소 원간중 구역, 자주 암정, 오천, 소암 구역
 전우리가 봉헌금: 3,760,000원

- 교무금 : 3,760,000원

0}

- 지난 한해동안 많이 고마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년도 교무금 완납과 금년도 교무금 신입을 부탁드립니다.
 1. 금주 모임: ① 사목회 연수 및 산행 교중미사후(내장산)
 ② 남성 구역장 모임 주일 오전9시
 ③ 구역반장 월레회 4일(수) 미사후
 ④ 애령회 6일(금) 오전 11시
 ⑤ 자모회 6일(금) 인자후
 2. 차주 모임: ① 반석회, 울드레야 교중 미사후
 ② 아카페회 11일(수) 미사후
 3. 교구 신년 하례식: 3일(화) 오전 10시30분(중앙성당)
 4. 감사현금: 조현숙(미카엘라)3만
 5. 차주 성당청소 및 미사안내: 평화의 모후만
 성탄 전야: 1,285,740원
 지난주 봉헌금: 1,754,500원
 교무금: 5,990,00

- 교무금: 5,990,000원

인후동

주임신부: 243-5223 서 문 실: 242-5022 주임시부: 한 기 호 F A X: 241-8317 수 년 원: 245-8875 서록화청: 황옥 현 홈페이시:http://fr.catholic.or.kr/jnkh59 정년카페:http://cafe.daum.net/christhaha

- 05년 항해 동안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06년 올해에도 주남께서 모든 가정에 축복하시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오늘 모임: ① 은 총의 어머니 꾸리아 교충미사 후 ② 성 마리아 꾸리아 교충미사 후 ③ 사목회 후4시(강당) ※ 사목회 임원 및 각 분과장(차장)님께서는 정장 차림으로 참석 바랍니다. 2. 주간 모임: ① 구역(바)장 월례회 6일(급)전10시 ② 제대회 6일(급)전11시 ③ 청 숫가대 월례회의 6일(급)전1이사 후 3. 새명세자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만남의 자리: 8일(일)교충미사 후 강당 4. 미납된 교무금 교구진(출한금 납부 하시고 06년도 교무금 신입 바랍니다. 7 기를 리센터 신축한금 신입 ' 역명 20만'. 이청근 김재란, 박용 첫세도 각 100만'. 이현영 80만'. 우울금 신동수 각50만'. 이기자 30만'. 정원양 10만 ※ 다음 주계속 6. 성당 청소 담당'. 01월07일(토): 사랑하올 어머니, 평화의 모후 외부(남성)청소 : 치명자의 모후 1시 보이었 청소 1당로 11 및 봉헌: 금추 유일구역 차주 우아구역 생단 대축일 봉헌금: 3,806,840원 교무금: 12,855,500원 구유예물: 3,730,510원

앗

- ⊙ 자세한 공지사항은 중앙성당 소식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교무금을 정성껏 신입 바랍니다.
- 1.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세계평화의 날) 미사: 1월 1일(오늘) 오전 10시 30분, 주교님집전
- 2. 신년하례식: 1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교님 집전
- 3. 사제서품식: 1월12일(목) 오후2시에 있습니다.
- 4. 사목회 : 1월 8일(다음주일) 교중미사후에 있습니다.
- 5. 매일 성서쓰기(구약성서): 1월 첫째주는(1월 2일(월)~1월 8일(주일) 사무엘기 1장부터 ~ 3장까지 입니다.
- 예수성탄대축일 봉헌금 : 4,961,300원
- 교무금: 8,047,000원

-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신자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구 신년하례식: 3일(화)전10시30분 중앙 성당,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예비자 교리반 모집: 입교식-2월12일(주일)교중미사 중 ※ 선교는 신자들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각자 한 분씩 인도바랍니다. 2. 환자방문 : 1월10일(화)요전 대상자 미리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3. 구역반장 모임: 1월6일(금) 오전미사 후 (사목회는 13일로 연기합니다.) 4. 차주모임: ①호성희, 요셉회-8일(주일) 교중미사 후 ②청년회-8일(주일) 저녁미사 후 5. 주건미사시간 변경: 2(월)-06시, 3(화)-후7시, 4(주)-10시, 5(목)-새벽6시(각한대만) 6. 교구청 신축한금 신입: 지난주~9, 360천원, 누계-265, 510천원※감사합니다. 7. 감사한금: 이대현-100만, 김정식-30만, 김근에, 의명2인-각10만, 신옥근 5만※제 단체 전년도 활동내용 및 현재현황 속히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봉헌금 : 3,559,750원 교무금 : 4,336,000원

교황 성하 제3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요약) 진리 **안의 평화**

새해를 시작하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특히 폭력과 무력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평안을 빕니다. '진리 안의 평화'는, 언제 어디서든 진리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인간은 자연히 평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확신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를 단순히 무력 전쟁의 부재에 국한시켜서는 안되며 '인간 사회 안에 창조주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질서의 열매', '언제나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류가 실현하여야 할'질서의 열매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화는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사랑 안에서 인류 역사가 하느님의 질서를 따르도록 할 책임 행사를 요구하며, 모든 진정한 평화 추구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은 '사목 헌장'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적대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체가 만든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하여 교황청은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그 법을 존중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어려운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임무를 올바로 수행할 때에 참으로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와 오늘날 흔히 근본주의로 불리는 종교 광신주의가 조장하는 테러리즘으로 평화의 진리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또한 거부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진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정부들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려고 계획하는 정부들을 포함한 모든 이가 분명하고 확고한 결정으로 진로를 선회하여 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핵 폐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여 절약된 자원은 자국민과 그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 계획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면서, 광범위한 세계화 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세계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제도와 운영의 쇄신을 바랍니다.

이 담화를 마치며,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에 열중하기를 당부합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끊임 없이 간청하여야 하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1월 1일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5년 12월 25일 현재)



단위 : 처워

			en.ee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2,018,175	13.45%
사제단	1,000,000	454,841	45.48%
개인 및 타지역	1,500,000	580,706	38.71%
(특별헌금)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3,275,530	18.20%